100억 빚내 조성 목포 세라믹산단, 분양은 단 1건

평당 분양가 88만원…타지역의 2배

시, 보조금·융자알선 등 제고 노력 주목

목포시가 100억에 가까운 기채까지 발행해가면서 조성중인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분양률 제고를 위해 보조 및 융자 알선까지 나설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첨단 세라믹 산업 집적시설 용지 확보를 위해 연산동 618-64번지 일원 11만6455㎡에 총사업비 215억원을 들여 세라믹 산단을 조성 중이다.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 대상 17필지(8만920㎡) 17개 업체 가운데 실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N사 단 1곳 뿐이다.

이처럼 분양이 저조한 것은 평단 분양가가 88만7000원에 달해 군산 등 타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높아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시는 이에 따라 세라믹 산단의 분양률 제고를 위해 '분양가의 35% 보조와 65% 금융권 융자 알선' 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다.

지난 27일 시는 의회 업무보고에서 "토지 매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을 이용해 35%를 보조하고, 중소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금융권과의 협약을 통해 분양대금의 80%한도 내에서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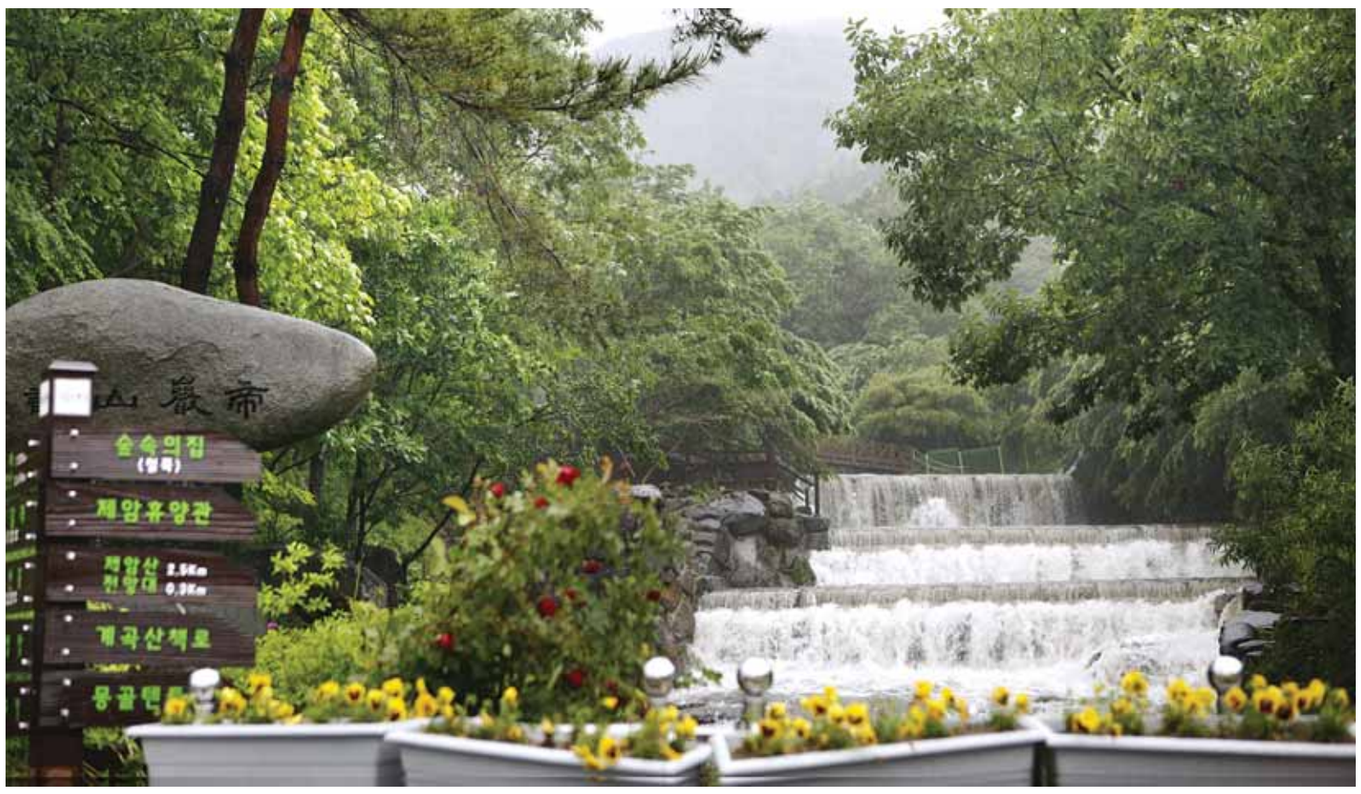
하지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98억이라는 빚까지 내서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당초 사업 초기에 타당성 분석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 일 위원장은 "시가 고육책이라고 내놨지만 만약 파격적인 조건에도 분양률이 기대에 못 미칠 땐 답이 없는 것 아니냐"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대양산단의 축소판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개발보다는 분양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세라믹 산단 투자 유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MOU 체결업체와 타깃기업 80곳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홍보물 배부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중으로 금융권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은 용지매각 대금으로 전액 납입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제암산휴양림 시원한 물줄기 지난 27일과 28일 내린 많은 비로 보성군 웅치면에 위치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주변 계곡 물이 3단 폭포를 형성하며 시원한 물줄기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해발 807m의 제암산 자락에 위치한 휴양림은 최근 개장한 숲속의 집 18동을 포함해 각종 휴양편익시설을 갖춰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목포대 등 대학생 200명 무안 양파농가 일손돕기

목포고용노동청 주관

목포고용노동지청(이하 목포노동청)은 무안군 지역 양파 수확기에 맞춰 오늘 29일부터 31일까지 목포대·동신대·초당대 대학생 200명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다.

무안은 양파, 마늘 주산지로, 해마다 이맘때쯤 양파·마늘 수확기와 모내기철이 겹쳐 일손 부족과 그에 따른 치솟는 인건비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목포노동청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의 무안농가 양파작업 지원이 농가일손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목포노동청은 농가 및 가공업체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지역 취업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상시인력 부족 업체는 고용창출지원사업(최고 5000만원 지원)을 통해 통근차량 구입비용, 기숙사 식당 등의 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거나 청년취업인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재준 목포노동청장은 "지역 대학생들의 농촌일손 돕기 참여가 다소나마 농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농촌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촌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의 농가는 지난 2011년 기준 16만7000가구(전국의 14.4%)로 시도별 농가분포에 있어 경북(1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나 농촌인구 고령화와 구직자 부족으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순천교도소 '디딤돌 교정장학금' 수여

직원들 십시일반 관내 중학생 5명에 60만원씩

순천교도소(소장 구지서)가 29일 순천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디딤돌 교정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디딤돌 교정장학금은 순천교도소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올해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관내 중학생 중 성실한 학교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이 대상으로 했다.

제1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순천삼산중학교 3명, 순천여자중학교 2명 등 총 5명으로, 각 개인별로 장학증서와 장학금 60만원을 받았다.

또 순천교도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순천시 관내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정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법질서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이순신대교 먹거리 타운' 새 명소로

광양시, 메뉴 개발·업소별 홍보 등 특화 노력

광양시가 지난해부터 조성해 온 '이순신대교 먹거리 타운'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순신대교 먹거리 타운은 이순신대교 개통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라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바 있다.

사는 그동안 먹거리타운 업소 활성화를 위해 전문 외식컨설팅업체에 의뢰, 음식업소와 1대1 방문상담을 통한 업소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 전수, 상차림과 메뉴 셋팅 방법 등을 지도한 바 있다.

관광객들이 더 쉽게 먹거리 타운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2개소에 설치한 조형물을 올해도 추가 제작·설치하고 업소별 홍보 메뉴 책자를 관광지 등에 비치하는 등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 성료

순천 팔마실내체육관 1천여명 참석

5개시·군 200개 업체서 417명 채용

전남도는 29일 순천팔마실내체육관에서 올해 첫 전남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권역별로 4차로 나눠 개최된다.

이번 1차 박람회에선 순천시·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 5개 시군 구인업체와 구직 여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개 업체에서 417명을 채용했다.

구인업체는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직접 구인업체와 채용 게시판에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면접을 하는 간접 구인업체로 나뉘어 면접 기회를 제공했다.

직접 구인은 30개 업체가 183명을 채용하기 위해 부스를 운영했고 간접 구인은 170개 업체가 234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게시판을 활용했다.

박람회장은 크게 채용관, 창업체험관, 취업준비관 등으로 운영됐다. 특히 채용관 부스는 성격유형을 6가지로 분류한 직업선호도 검사(RIASEC)를 실시해 인기를 모았다.

창업체험관에선 (주)에코그린·콩사랑·(유)바늘쟁이·이인숙전통웰빙식품·꽃담·삼공사공안테나숍 등 창업 관련 14개 업체가 참가해 창업 상담을 했다.

취업준비관에선 광주전남중소기업청·순천고용센터·전남신용보증재단·순천상공회의소·소상공인진흥원·전남테크노파크·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참가해 다양한 취업 및 창업정보를 제공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4차례의 박람회를 통해 855개 구인업체를 발굴해 2775명의 여성들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 684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이날 순천을 시작으로 6월 21일 목포에서 서부권 9개 시군, 10월 2일 여수에서 여수시와 광양시, 10월30일 장성에서 북부권 6개 시군이 참가한다.

/장필수기자 bungy@